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기쁘고 떳떳하게!

푸른 산은 흰 구름의 아버지요  
흰 구름은 푸른 산의 아들이다  
서로 의존함이 없이 온 종일 서로 의존 하지만  
흰 구름은 언제나 흰 구름이요  
푸른 산은 언제나 푸른 산이다.

중국 조동종의 창시자 동산양개 선사의 전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일수 없고 서로가 모두에게 어떤 식이든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나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남들보다도 낫다고 잘난체하는 자기 우월감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자기가 남들보다도 못하다는 열등감 이라고 합니다.

---

우리는 누구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생채기를 내며 상처에 익숙한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푸른 산과 흰 구름처럼 서로가 다른을 인정하고 각자의 본색대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해 나갈 때 세상은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쁘게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좀 더 값을 치러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주종합사회복지관에 20년을 넘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꾸준히 오시는 봉사자들을 뵈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로 푸른 산과 흰 구름입니다. 봉사로 오셔서 늘 좋은 영향력을 나눠주시면서 또 자기의 자리를 맡없이 지키면서 이웃과 공존하시고 복지관의 사명에 함께해 주시는 모습이 늘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건강과 시간으로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들의 마음속에는 분명 감사와 기쁨이 늘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삶이란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큰 진리이지만 이러한 진리는 이웃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무엇을 더 가진 것이 기쁘다거나 또 상대방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고 좀 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임을 알아야 합니다. 풍성한 계절, 가을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전체가 참된 감사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천주교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권혁기 바오로**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중 제33주일인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해마다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며 모든 신자가 평신도의 소명을 깊이 성찰하고 평신도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평신도의 사명을 거듭 되새기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34번 '갈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 본기도

†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잠언 31장 10절-13절, 19절-20절, 30절-31절

**안 내** : 잠언의 저자는 여인의 아름다움은 주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다고 말합니다.

**묵 상** :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란 외적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헌신, 봉사하며 자신의 굳은 신앙을 말과 표양으로 자녀들에게 전수하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화답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제2독서 : 테살로니카 1서 5장 1절-6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덮치지 않는 것이라며,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묵 상** :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니, 깨어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늘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

**복 음 : 마태오 25장 14절-30절**

**강 론 : ‘기쁘고 떳떳하게!’(1-2쪽)**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 165번 ‘주의 잔치’**

**영성체 후 묵상**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음’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욕심과 교만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자리 잡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성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7번 ‘이 세상 덧없이’**

**※ 공소사목 성금**

장주현님	50,000원	정규석님	50,000원
모전동성당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9,49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림

###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역사서)

- 일시 및 장소 :  
안동 - 11월 25일, 12월 2일, 9일, 16일  
교구청 1층 강당 (토요일 13:30-17:00)  
함창 - 11월 20일, 27일, 12월 4일, 11일, 18일  
함창 성당 소성당 (월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 예비신학생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9일(주일)
- 장소 : 부산교구 언양성당, 살티공소
- 준비물 : 미사준비, 목주, 편한 신발, 모자

### ■ 청소년 견진캠프

- 일시 : 2018년 1월 12일(금) 15:00  
- 14일(주일) 17:00
- 장소 : 문경 정보촌 유스호스텔
- 대상 : 교구 내 중고등부 견진대상자(중1 제외)
- 회비 : 1인 80,000원
- 신청 : 11월 30일(목)까지 신청마감 엄수

### ■ 가톨릭농민회 선종회원 지도신부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1월 29일(수)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접수 및 문의 : 054-855-01270127

### ■ 가톨릭상지대학교

####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 2차 모집 : 11월 7일(화) ~ 11월 21일(화)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 갈전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매주 주문판매

- 교우들이 직접 농사지은 콩을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메주를 만듭니다.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 문의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임점녀 노엘라 010-3251-5052

### ■ 아씨시수녀들과 함께 수도생활체험 피정

- 일시 : 11월 25일(토) - 26일(주일)
- 대상 : 35세 미만 미혼여성(2만원)
- 문의 : 010-5313-0241 전베로니카 수녀

### ■ 예수성심시녀회 향심기도 소개피정

- 일시 : 일일피정 11월 26일(주일)  
1박2일 소개피정 11월 25일(토)-26일(주일),  
2박3일 심화피정 11월 24일(금)-26일(주일),
- 대상 :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 장소 :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집
- 신청 : 010-5332-7587

### ■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설명회

- 일시 : 12월 2일(토) 14:00
- 대상 : 진학희망 학부모(초6, 중1)
- 문의 : 054-338-0530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6장 사목적 전망

#### 신혼 생활 초기에 함께하기

##### 일부 자원

223. 시노드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신혼 초기는 부부들이 혼인의 도전과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 거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들과 사목적으로 함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가정 공동체」, 제3부 참조). 이러한 사목에 성숙한 부부들이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당은 교회의 협회와 운동 단체, 새로운 공동체들이 할 수 있는 협력을 통하여 성숙한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부부들이 자녀를 커다란 선물로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자세를 지니게 장려하여야 합니다. 가정 영성과 기도, 주일 미사 참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부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영성 생활의 성장을 도모하고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연대성을 강화하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가정을 통한 복음화의 촉진에 전례와 신심 활동, 특히 혼인 기념일에 거행되는 가정을 위한 성찬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224. 이러한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며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곧 대화하고, 서두르지 말고 안아주고, 함께 계획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 사회의 정신없는 속도나 의무적인 일에 쫓아야 하는 시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유익하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있을 뿐 서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목자들과 혼인한 이들의 모임은 젊은 부부나 깨지기 쉬운 부부들이 그러한 때에 서로를 만나고, 서로 찬찬히 살펴보고, 배우자 서로의 존재를 체험하도록 하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225. 이러한 의미의 ‘수련 과정’에서 좋은 경험을 한 부부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편하게 보내는 시간의 마련, 자녀들과 함께하는 휴식 시간, 중요한 일들을 기념하는 다양한 방법, 영적 나눔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신혼부부들이 서로 소통을 잘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러한 시간을 알차고 의미 있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때의 설렘이 그 빛을 바랬을 때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전혀 모르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각종 기기에 빠지게 되거나, 자기가 몰두할 다른 일을 찾아내거나, 다른 이의 품을 찾거나, 부부가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226. 또한 신혼부부들에게 건강한 친밀감과 안정감을 전해 주고 일상에서 함께하는 의식(儀式)을 통하여 자신들만의 습관을 형성할 것을 권유합니다. 곧 매일 아침을 입맞춤으로 시작하기, 매일 저녁 서로 축복하기, 상대방을 기다리고 그가 집에 들어올 때 환대하기, 함께 외출하기, 집안일 함께하기와 같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치를 열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곧 가족이 함께 잔치를 열 수 있는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좋은 일을 경축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하느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삶에 대한 열정을 다 같이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경축할 수 있다면, 그 활력은 사랑의 힘을 새롭게 복돋우고, 사랑을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일상적인 일들을 색채와 희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227. 우리 목자들은 가정이 신앙을 키우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해성사를 자주 보고, 영적 지도를 따르며, 피정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중에 가족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방문할 때 모든 가족을 한데 모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정을 주님의 손길에 맡기는 시간을 갖도록 초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각자 하느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는 각자 비밀의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우리가 충실히 남아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노드 교부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하느님 말씀은 가정의 삶과 영성의 원천이다. 모든 가정 사목은 기도하며 읽는 교회의 성경 독서를 통하여 그 내적 틀을 갖추고 가정 교회의 구성원들을 길러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개인적 삶에 기쁜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부부와 가정들이 직면하는 여러 도전들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식별을 위한 빛이 됩니다.”

- 다음에 계속 -



## 한여름 밤의 꿈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살다보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곁에서 난리를 쳐도 무심하게 지나간다. 성당일도 마찬가지다. 신심단체나 활동단체가 많아도 관심이 없는 단체가 있다. 내게는 성가대가 그랬다. 음악에 대한 조예가 얕고, 성량이 부족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다.

올 여름에 성가대원이 되었다. 열성적인 성가대장의 권유 때문이었다. 발표회 참가를 위한 3개월 동안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성가대를 할 실력은 아니었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악보를 받아들자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학생 때 배운 음악 실력을 총 동원해도 계명을 읽기가 쉽지 않았다. 악보를 보며 반주를 따라가는 것조차 벅찼다. 불러야 할 세 곡 중에서 아는 노래는 한곡뿐이었다. 그것마저도 원음이 아닌 테너파트를 불러야 했다.

첫 연습을 하고 몇 주 동안은 악보 한번 보지 않았다. 쳐다보기가 싫었다. 약속을 했기에 연습을 빠질 수는 없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노래 소절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어렵기는 해도 노래 가락은 아름다워서 입에 감겼다. 잘 모르면서도 자주 흥얼거리고 있었다.

생각을 바꾸게 만든 것은 지휘자와 성가대장의 열정이었다. 같은 성가대원인데도 임하는 자세가 달랐다. 그렇게 열심일수가 없었다. 노래로 하나가 되어가는 대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밀쳐두었던 악보를 가져와 계명을 짚어보고 지휘자가 강조한 부분을 기억해봤다. 반복해서 불러보자 눈에 익고 자신감이 생겼다. 어렵פות이 그림이 그려졌다. 연습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곁돌던 소수에서 다수 속으로 녹아들며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더니 앞서 일하는 분들의 열정이 성가대원들을 춤추게 만들었다.

발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박수를 받았고 칭찬도 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수고했다며 격려의 박수를 쳤다. 걱정과는 달리 성가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흐뭇했다.

나는 생각이 이끄는 판단을 믿으며 살았다.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해 들어 의도치 않게 몇 번의 새로운 일을 해보고 나니 내 판단이 늘 옳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근거 없는 편견으로 자신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며 살아온 것이다. 성가대를 하고 나니 이제 그런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가장 자신없어하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잠시 망설이기는 하겠지만 예전처럼 피하지는 않으려 한다. 한 번쯤은 자신 없는 일,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익숙하게 걸어왔던 길에서의 일탈이기는 해도 이제는 스스로의 편견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으로서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다. 행운이 따른다면 내게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능력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가대를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 가끔씩 발표회 때 불렀던 성가를 다시 듣는다.

지난 석 달이 아득히 멀어져 보이기도 한다. 분명히 그 때는 힘들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는데 지금은 그립고 아쉬운 추억이 되었다. 지나간 일들은 모두가 아름답게 채색되는 것일까? 성가대는 내게, 짧지만 강렬했던 ‘한여름 밤의 꿈’이었다.